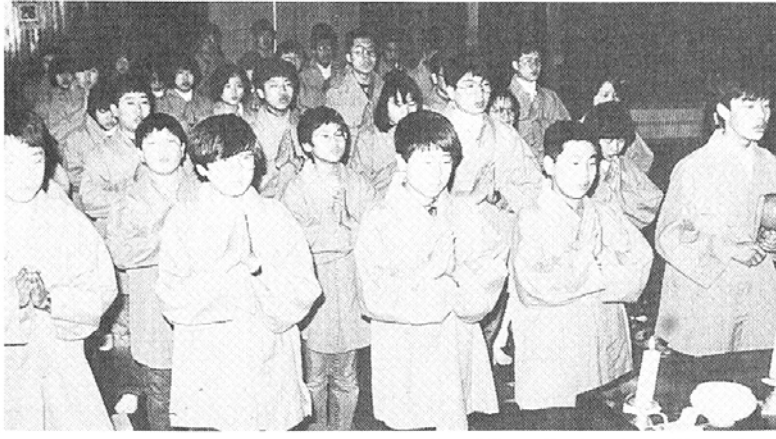


청소년 포교지 턱없이 부족

96년 '불교 청소년의 해'

주간 또는 월간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청소년 전문포교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청소년 교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포교지의 문제점이 이같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지는 79년 3월 창간 이래 고등학생 분자들을 위한 주간법회 보도지(법보)와 13개 지부 5개 지회로 현재 전국 조직의 청소년교화연합회(이사장

학교의 청소년들마저도 흡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포교지는 청소년 종합포교지라기보다는 회보 및 소식지, 문예지에 가까워 내용면에서 그다지 포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중·고등학생 대상 포교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전문포교지'의 중요성이 교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법보' 등 기존 3종 회보·문예지 성격 강해 교화 프로그램 개발...종단등 적극 지원을

청소년포교지	발행처	간행기간	연락처
법보	불인당	주간	0561761-3407
청소년교화보	청소년교화연합회	계간	02735-8165
꿈꾸는 새벽하늘	청소년문서포교회	주간	0531254-3997
법회와 실험	포교원	월간	02720-7060

현성남)가 15만 청소년 회원 대상으로 펴내고 있는 <청소년교화보>가 있다. 또 지난 5월 청소년문서포교회(회장 이지호)가 첫 발간한 <꿈꾸는 새벽하늘> 등 3개에 불과하다. 이는 20여개에 달하는 불교종림

간하고 있는 정암선법사(전직교사)는 "학생들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모아 놓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학생들은 무엇으로 교화 받을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그 역할과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게 바로 정예화된 청소년 포교지"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70년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를 창립, 현재까지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김재영법사는 "생활 속에 흡수돼 자연스럽게 불자로 교화될 수 있는 쉽고, 포교지다운 포교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법사는 또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식의 기존

의 불교포교는 개성이 강한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무리"라며 "이성문제, 학업문제, 시사문제, 영화·음악 등 청소년 관심사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분위기에 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청소년 전문포교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달 발행하고 있는 <법회와 실험>의 12월호에 청소년들만의 포교란을 신설해 청소년과 지도자를 위한 법회설법교안 및 문안, 경전근거자료 등을 실어 청소년 포교지로서 시범적으로 각 종립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자체 제작인간과 민간단체 후원 등 포교지 제작상의 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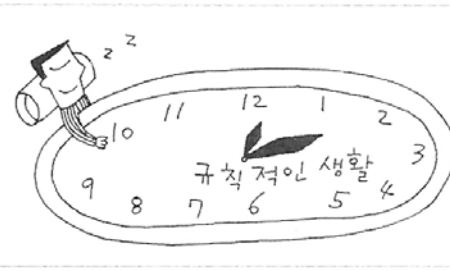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사람이 잠을 못자면 여간 괴롭지 않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비해 잠을 푸근히 재울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은 주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약물이란 것이 대개 습관성이 있는 약물이라서 여



간 주의하지 않으면 혹은 떨려다가 혹은 붙이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 말은 잠은 약물에 재울수가 있지만 그 결과 그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의존성의 노예가 되어 버릴

야할 몇가지 습관을 소개해 본다. 잠자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보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 불면이 있기 보단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지나친 걱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스스로 최면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잠 습관을 규칙적으로 들여보



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다. 가령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5시에 일어나(시간은 스스로 결정)는 식으로 자신이 규칙적인 스케줄을 정하여 그렇게 습관을 들여 본다. 처음 시작하면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잠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다.

무엇보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도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 일정한 잠의 주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 훈련이기 때문에 원상태의 수면리듬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한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하고 세다가 보면

만화 법구경

* 자신의 장 *
깨끗하고
더러운
내게 달린 것
이 향원

1. 고개장 사모님: "오늘 모임에도 내가 빠질 것 같아 아예 이리 온 거야"

2. 어머니: "너희들..."

3. 잠심 준비는 걱정 마, 시켜서 먹도록 하면 될 테니까.

4. 잠깐 기다려 우선 차라도 내 올게

5. 차림이 사모님 자체분 고삼이지?

6. 아이고 개 똥에 머리 아파

7. 4. 50만원 짜리 국, 영, 수 과의 선생 부쳐줘도...

8. 닥해라! 4.50 짜리니 그렇지.

9. 나도 그 전에는 80만원짜리 불엿을 땀 시런 참더니

10. 120짜리로 바꿨을 뿐이려니워 너만 뜨면 달라 지는 거 있지

11. 시험 칠 때 마다 성적 올라가는 소리가 쑥쑥난다 니가 호호호...

12. 아, 그 선생 나한테도 좀 소개시켜 줘

13. 나도 좀 만나게 해줘

14. 소개 해 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괜히 임시 막바지에 와서

15. 한명이라도 우리 아이 라이벌 더 만들어 놓는 건 곤란해

16. 불법과의까지 시켜 가며 자기 자식만 남보다 낮게 만들겠다고 아우성 치는 건 문제가 아니냐?

17. 거기다 공부에 찌든 애들이 불쌍 하지도 않아요?

18. 어머! 애봐 부처님 같은 말씀만 하네

19. 차라리 능력 없어 그렇게 못해 억울 하다고 그래라

20.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진인(眞人) 성자의 가르침을 못된 소견으로 비방하는 바보들은 열매가 어물면 저질로 말라 죽는 킷타풀처럼 스스로 파멸한다

21. 인선이 말 새겨 들을 만 하잖아?

22. 아주 단박 찾았네

23. 웃기지 마라

24. 세상이 어디 나만 착실하게 한다고 제대로 될 것 같아?

25. 네 남편 정직한 공무원 이라고 표창 까지 받았지만 좋아지는게 뭐 있지?

26. 다 부질 없단 말야 요령껏 살아야지

27.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깨끗하고 더러운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28. 불법 과의라도 시켜 인재 만들어 놓으면 나라 발전에 도움 되는 거 아냐?

29.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지?

30. 정말!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애들이다

31. 아무리 남을 위한 큰일일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전념하라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대지관좌선법>을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達空錄 金無得 註釋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철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 구성: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교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수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 사양: 4×6배판, 606p. 양장제본 ● 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 정가: 20,000원 ● 보급: 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대지관좌선법>을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達空錄 金無得 註釋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